

51년 전 헤어진 쌍둥이, 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창

51년 전 생이별한 쌍둥이 남매가 알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 동창이었다.

지난달 11일 디지털 TV 채널인 WTHR13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에 사는 캐런 워너와 마이크 잭맨은 자신들이 쌍둥이인 사실도 모른 채 50여 년을 살아왔다.

51년 전 이들은 몇 분 간격으로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이후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 이들은 모두 어릴 때 입양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쌍둥이라는 것은 모르고 성장했다는 것이다.

워너가 쌍둥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5월이었다. 당시 주 정부가 입양 기록을 공개했을 때 워너는 친모의 기록을 확인하고 자신이 쌍둥이인 것을 알았다. 워너는 “반드시 내 형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고 회상했다.

워너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 여러 입양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알 수 있는 것은 생년월일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 끝에 자신이 살던 곳에서 세 남자가 생년월일이 같다는 사실을 알



▲ 캐런 워너(오른쪽)와 마이크 잭맨. 사진=유튜브(WTHR) 캡처

아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마이크 잭맨이었다. 워너는 잭맨에게 그가 자신의 쌍둥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렸고 결국 DNA 검사를 통해 진짜 남매인 것을 확인했다.

잭맨은 “내가 쌍둥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까지 뭔지는 잘 몰랐지만 뭔가 결여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면서 “우리 둘은 학창 시절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 며 웃었다.

‘마스크 쓴 사진’ 들어간 운전면허증



▲ 마스크 쓴 사진이 사용된 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는 필그림. 사진=KTLA5화면캡처

마스크를 쓴 얼굴 사진으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여성이 화제다.

지난달 21일 KTLA5에 따르면 레슬리 필그림(25)은 얼마 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차량등록국(DMV)을 찾았다. 필그림의 운전면허증에 쓰일 사진을 촬영할 때, 평상시처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DMV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한 필그림에게 “카메라를

보세요!” 라고 말하더니 사진을 촬영했고, 이후 마스크를 벗게 하고 다시 한 번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필그림에 도착한 운전면허증에는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사진이 들어가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DMV 측은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얼굴 전체가 드러나야 한다며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필그림은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그녀는 “‘마스크 버전’의 운전면허증으로 주류를 구입할 수 있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바텐더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는데, 그 역시 운전면허증이 다른 사람들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버전의 운전면허증은 액자에 잘 넣어뒀다가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보여줄 것”이라면서 “이 면허증은 지금 시대를 대변하는 사인과도 같다.” 고 덧붙였다.

“아내집 3일, 애인집 3일”

인도 자르칸드주 란치시 출신 라제시 마하토는 최근 조강지처를 두고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나 두 집 살림을 해온 것이 들통났다.

마하토의 아내는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달아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내연녀 가족도 마하토가 딸을 납치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마하토와 내연녀를 연행해 조사한 결과, 마하토가 미혼인 척 내연녀에게 접근해 정식으로 결혼식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녀 역시 피해자인 셈이었다.

마하토와 아내, 내연녀 사이에 분쟁의 골이 깊어지자 경찰은 직접 중재안을 제시했다.

란치시 경찰은 마하토에게 두 집 살림을 이어갈 방안으로 일주일 중 사흘은 아내집, 사흘은 내연녀 집에 머무르라고 중재했다. 나머지 하루는 휴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내와 내연녀 모두 결혼식을 올린 만큼,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소 황당한 제안이었지만 세 사람은 경찰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을 만들어 공증까지 마쳤다. 하지만 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하고 깨지고 말았다. 내연녀가 결혼을 핑계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마하토를 고발한 것이다. 그 사이 마하토는 자취를 감췄고 경찰은 마하토의 뒤를 쫓고 있다.

마하토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데는 아내 도움이 컸다는 전언이다.

현지에서는 경찰의 중재안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자료사진. 사진=shutterstock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학,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